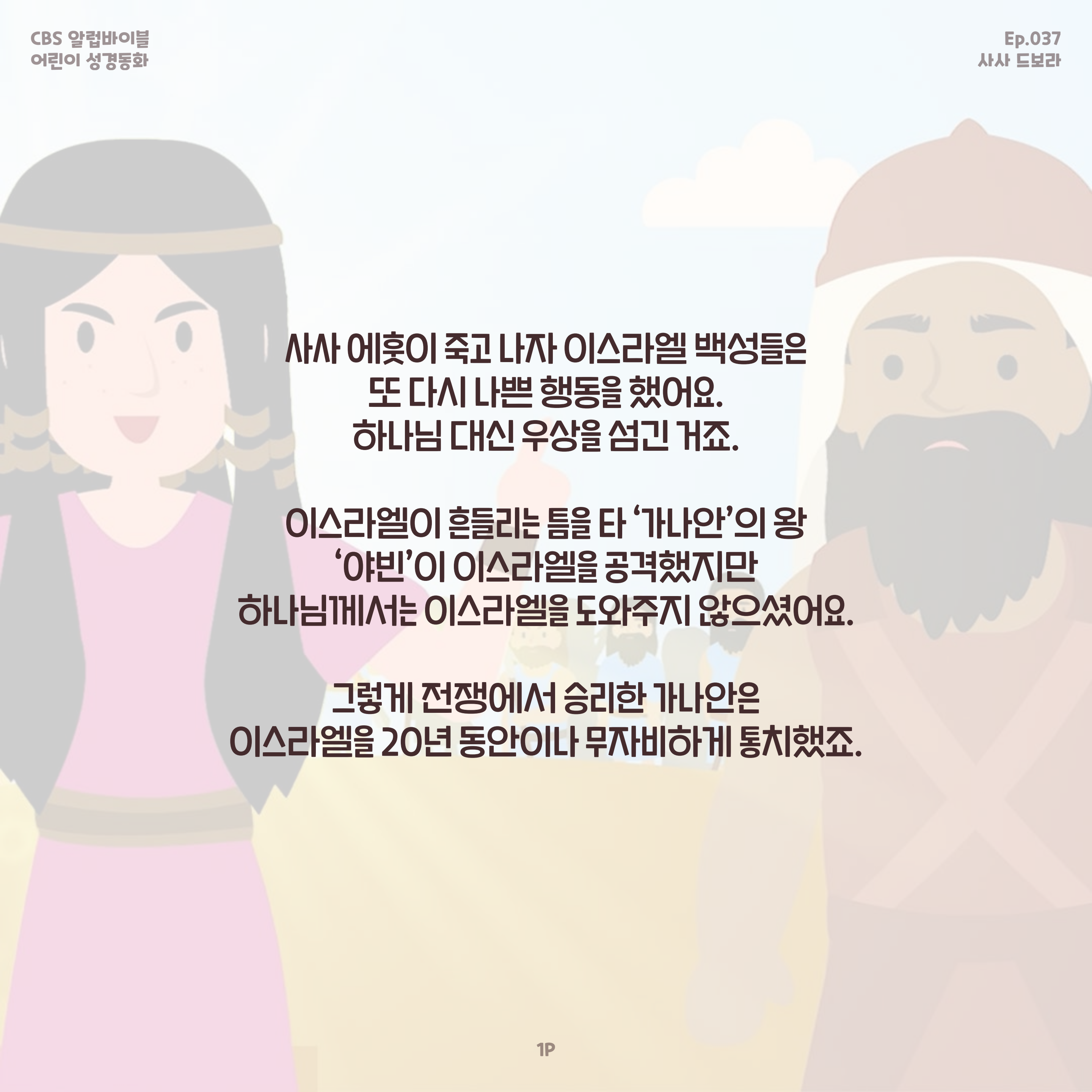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37

사사 드보라

(사사기 4:1~5:31)



사사 에훗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나쁜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긴 거죠.

이스라엘이 흔들리는 틈을 타 ‘가나안’의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가나안은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무자비하게 통치했죠.

“아이구야, 좋은 시절은 다 갔구나... 평생 야빈 왕의 괴롭힘을 받다가 이렇게 죽게 되겠구나.”

**“아저씨, 모르는 소리 마세요.
야빈 왕보다 더 나쁜 사람은 따로 있는 거 모르세요?”**

“더 나쁜 사람? 그게 누구냐?”

**“누구긴요 시스라 장군이죠!
사람이 어찌나 잔인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지!
울던 아이도.. ‘시스라 장군이 온다’ 하면
뚝 그칠 정도라고요!”**

시스라는 가나안의 악명 높은 장군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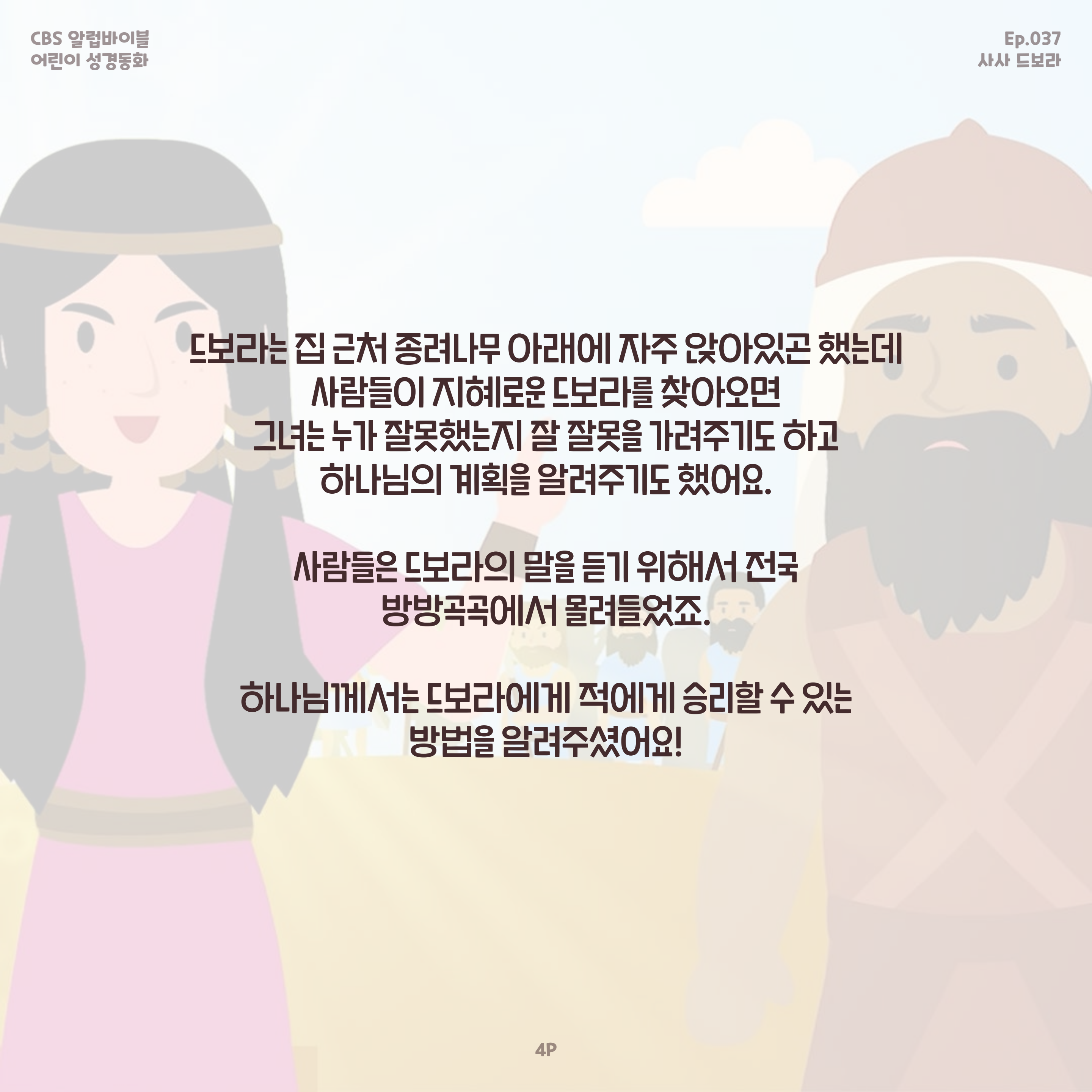
**시스살의 군사들은 말이 끄는 전차를 타고 다녔는데
전차 대수가 900대나 됐죠.**

**그들은 전차 위에서 사람들에게 화살을 쏘거나
창을 날리곤 했어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일 수 밖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뉘우치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사를 선택해 주셨어요.**

바로 ‘드보라’라는 용감한 여인이었죠.

A stylized illustration of Deborah and Barak. Deborah, on the left, is a woman with long dark hair, wearing a pink tunic and a grey headscarf with a gold band. Barak, on the right, is a man with a long grey beard and a brown turban. They are both looking towards the center. In the background, there are faint silhouettes of other people and a yellow sun or moon in a blue sky with a white cloud.

**드보라는 집 근처 종려나무 아래에 자주 앉아있곤 했는데
사람들이 지혜로운 드보라를 찾아오면
그녀는 누가 잘못했는지 잘 잘못을 가려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드보라의 말을 듣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몰려들었죠.**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적에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감한 군사인
‘바락’을 불렀죠.**

**“바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만 명의 군사를 모아서 ‘다볼’ 산으로 가라합니다.
그러면 가나안의 시스라 장군이 당신을 뒤쫓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용감한 바락이라도
시스라가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선뜻 드보라의 명령에
아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어려웠죠.**

**“...정 그렇다면,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 주십시오.
당신이 함께 가면, 저도 갈 것이고 당신이 안 가면
나, 나도 가지 안 가겠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바락이 안타까웠어요.
그 정도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가장 큰 공을
세울 자격이 없었죠.**

**“좋아요. 나도 당신과 함께 가겠어요.
허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더라도
바락 당신에게 돌아갈 영광은 이제 없어요.”**

**“시스라 장군은 당신의 손이 아닌
한 여인의 손에 의해 죽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바락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 여인?’ 아니, 시스라를 죽일 만큼 용감한
여인이라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드보라밖에 없는데
아, 드보라가 직접 시스라를 없앨 생각인가 보구만!’**

**하지만, 바락의 예상은 보기 좋게 틀렸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준비해 두셨거든요.**

**“뭐라? 이스라엘 녀석들이 군사를 모아서
다볼 산으로 갔다고?
어디 노예들 주제에 감히 이 시스라에게
저항하겠단 것인가?
두 번 다시 까불지 못하도록 본대를 보여줘야겠다!”**

**잔혹한 시스라는 흥분해서 곧장 군대를 모아
다볼 산 근처로 향했어요.**

**시스라의 군대가 산 밑에 있는 강 유역에 다다랐을 때
드보라와 이스라엘 군대는
산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마침내 드보라가, 명령을 내렸어요.

**“바락 장군!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물리치게 해주시는 날입니다.
즉시 군대를 이끌고 진격하십시오!”**

드보라의 눈빛과 말투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신이 가득했어요
바락은 용기를 내서 시스라의 군대를 향해 돌진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대는
실제 규모보다도 훨씬 거대해 보였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시스라의 군대와 전차들을
혼란스럽게 만드셨죠.

말들이 제멋대로 날뛰고, 군사들은
겁에 질려서 이리저리 도망 다니기 바빴어요!
결국 바락의 군대는 가나안의 군사들을
손쉽게 전멸시켰죠.

단 한 사람, 시스라만 배배고요!

“헉...헉... 걸음아 나 살려라! 헉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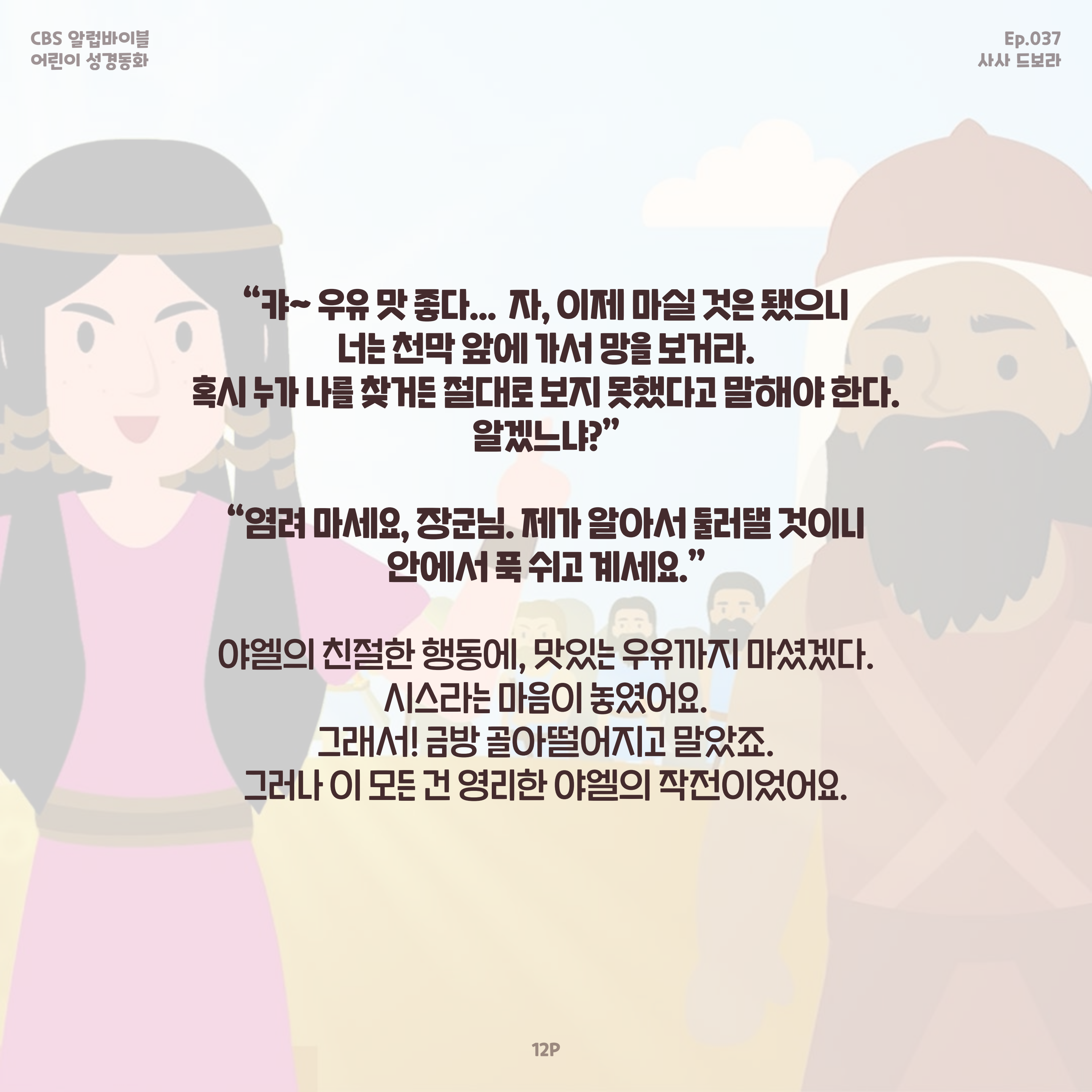
혼자 한참을 도망가던 시스라는 깊은 골짜기 근처에서
한 천막을 발견했어요.

그 천막은 ‘야엘’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는 집이었죠.

“장군님, 아무 걱정 마시고
어서 저의 집으로 들어오세요.”

“휴우... 이제야 살았구만.
거, 당장 마실 거 한 잔만 나오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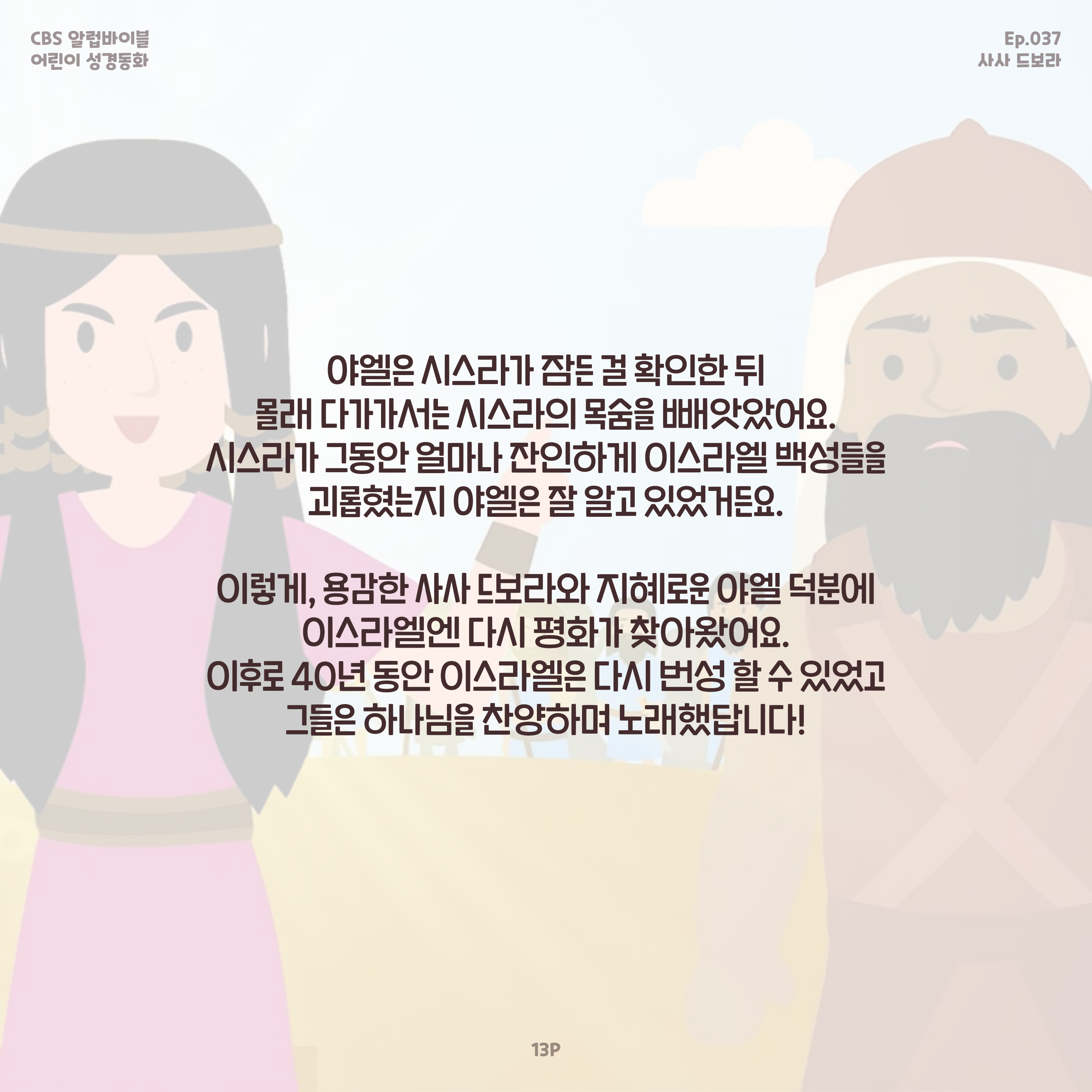
야엘은 가족 부대에 신선한 우유를 담아 왔어요.



**“카~ 우유 맛 좋다... 자, 이제 마실 것은 됐으니
너는 천막 앞에 가서 망을 보거라.
혹시 누가 나를 찾거든 절대로 보지 못했다고 말해야 한다.
알겠느냐?”**

**“염려 마세요, 장군님. 제가 알아서 둘러댈 것이니
안에서 폭 쉬고 계세요.”**

**야엘의 친절한 행동에, 맛있는 우유까지 마셨겠다.
시스라는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서! 금방 골아떨어지고 말았죠.
그러나 이 모든 건 영리한 야엘의 작전이었어요.**



야엘은 시스라가 잠든 걸 확인한 뒤
몰래 다가가서는 시스라의 목숨을 빼앗았어요.
시스라가 그동안 얼마나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야엘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용감한 사사 드보라와 지혜로운 야엘 덕분에
이스라엘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이후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다시 번성 할 수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습니다!